

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-관광 매력 높인다

- 4. 12. ‘스포츠관광 협의체’ 첫 회의 개최, 반기별 회의로 정례화
- 프로스포츠 관람 연계 K-응원문화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관광공사(사장 김장실, 이하 관광공사)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-관광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·관이 함께하는 ‘스포츠관광 협의체(이하 협의체)’를 발족하고 4월 12일(수), 풋볼팬타지움(서울 월드컵경기장)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.

프로스포츠 종목별 단체 관계자, 여행업계 대표 등 참석
매력적인 방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, 스포츠관광객 유치방안 등 논의

문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’의 후속 조치로 개별화·맞춤형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정례화된 협의체를 반기별로 운영한다. 공식 협의체로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매력적인 K-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단체,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더불어, 이 콘텐츠를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어갈 10여 개 여행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.

참석자들은 먼저 스포츠 분야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논의한다.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단체를 중심으로 ▲ (농구) 필리핀 등 아시아 쿼터* 선수 경기 관람 일정을 포함한 연계 방한 관광상품 구성, 외국인 선수와 모국 팬들과의 팬미팅 등 특별행사 개최를 통한 유치 마케팅, ▲ (야구) 2023 올스타전 등 주요 경기를 활용해 K-응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한 여행콘텐츠 개발, ▲ (축구) K-리그 내 외국인 선수 연계 한국 홍보 및 방한 상품 개발, ▲ (골프) 주요 골프 경기 계기 관람상품 개발, 외국인 프로 골퍼의 한국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*한 해외 골프팬 방한 유도,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골프대회 개최 등 종목별 다양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.

- * 구단별 외국인 선수 2명 외 추가로 일본, 필리핀 국적의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
- ** (기(既) 사례) 해외 프로 골퍼(8개국, 10명) 간 서바이벌 대결 후 최종 4인 KLPGA 대회 참가 특전 제공('19년, 신데렐라 스토리 프로젝트 진행)

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궁, e-스포츠뿐만 아니라 경륜·경정 부문 방한 관광객 대상 체험 활동에 대해 관광업계와 연계할 방안을 제시한다. 또한, 참여 여행사들은 방한 스포츠 관광 유치 사례를 공유해 각 기관에서 제시한 매력적인 K-스포츠가 방한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.

관광공사는 체험 중심의 개발관광객 맞춤형 유치를 위해 클라이밍, 서핑, 트래킹(국립공원 연계), 사이클(전국 일주 등) 대상 시범상품을 개발·운영하고, 한국의 매력적인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릴 마케팅* 계획을 발표한다.

- * 프랑스 Korea Expo(5월), 시드니 Snow Travel Expo(5월),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(5월), 홍콩국제관광박람회(6월), 싱가포르 NATAS 박람회(8월) 참여 및 마케팅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프로스포츠, 레저스포츠 등 경쟁력 있는 K-스포츠와 K-관광의 융합을 통해 방한 관광객들이 다채롭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.”라며, “이를 통해 방한 스포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짜임새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	책임자	과장	김명진 (044-203-2881)
		담당자	사무관	허진웅 (044-203-2883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